

미국 돈육산업의 현황과 과제*

김 원 태

미국의 양돈산업은 아이오와 주를 비롯한 콘 벨트 지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사료곡물과 고도화된 사육기술, 규모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1. 머리말

미국의 양돈산업은 아이오와 주를 비롯한 콘 벨트 지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사료곡물과 고도화된 사육기술, 규모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국제 돼지고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인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5년 이후 미국산이 덴마크산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들은 낮은 생산비와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양돈 경영환경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으로 유발된 사료곡물가격 상승,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이에 동반된 수출 부진, 2009년 4월 인플루엔자A(H1N1; 이하 H1N1)의 발생에 따른 급격한 수급 불균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돼지고기 산업의 특징과 최근의 사료비 상승, 세계 경제위기 및 H1N1의 발생 등이 돼지고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생산비 동향과 돼지고기 가격 전망을 기초로 2010년 미국 돼지고기 산업을 전망하고자 한다.

* 본 내용은 2010년 2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www.alic.go.jp)에서 발표된 「미국의 돈육산업 현황과 과제」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원태 연구원이 번역하여 작성하였다(wtkim@krei.re.kr, 02-3299-4245).

2. 미국 돼지고기 산업의 개요

미국은 돼지고기 생산량 세계 3위, 돼지고기 수출량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입량 세계 5위의 양돈강국이다. 본 항에서는 돼지고기의 소비, 생산 구조, 수출입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미국은 돼지고기 생산량 세계 3위, 돼지고기 수출량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입량 세계 5위의 양돈강국이다.

표 1 세계의 돼지고기 수급(2009년 예측치)

단위: 천 톤(지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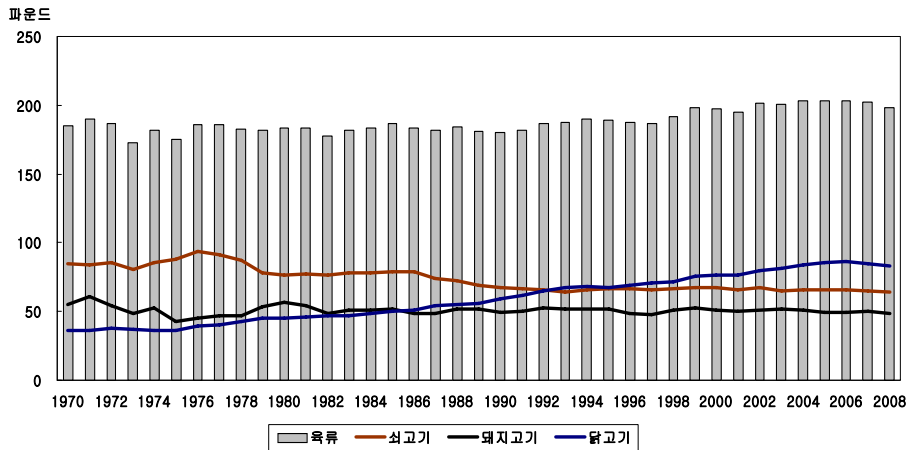
	돼지고기생산량		돼지고기 수출량		돼지고기 수입량	
	순위	수량	순위	수량	순위	수량
1위	중국	48,500	미국	1,887	일본	1,210
2위	EU	22,000	EU	1,250	러시아	750
3위	미국	10,466	캐나다	1,130	멕시코	600
4위	브라질	3,123	멕시코	645	한국	375
5위	러시아	2,205	중국	230	미국	373

자료: USDA/AM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돼지고기 소비: 정세

미국에 돼지가 처음으로 도입된 15세기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돼지는 주로 돼지기름을 얻기 위해 사육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림 1 미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 추이(소매 기준)



자료: USDA/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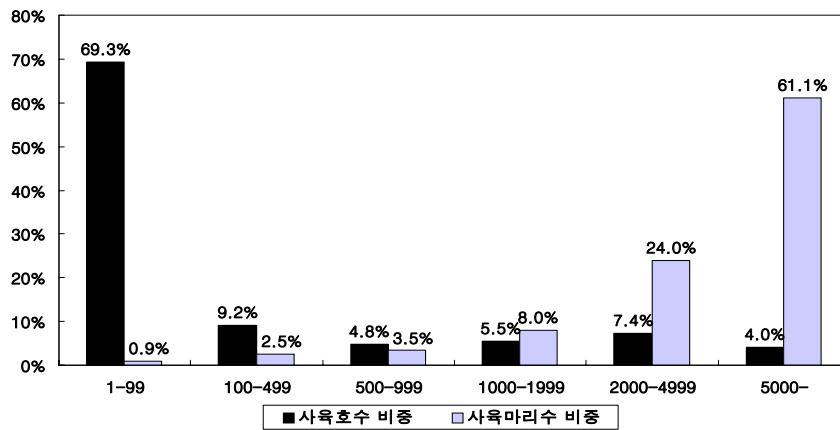
1인당 육류소비량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쇠고기 소비량이 감소하고 닭고기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저지방, 저칼로리를 강조하는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져 쇠고기 소비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생산구조 : 생산계약에 의한 공정별 전업과 진전

미국 돼지고기 산업의 특징은 생산자, 도축가공업자,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강화됨과 동시에 급속한 생산의 집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돼지고기 산업의 특징은 생산자, 도축가공업자,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강화됨과 동시에 급속한 생산의 집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돼지의 총 사육마리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완만히 증가하였지만 양돈 경영체는 1970년 이후 약 40년 간 90%가 감소하였다. 이 결과, 전 농가의 4% 수준인 5,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가 총 사육마리수의 61.1%를 사육하고 있다.

그림 2 사육규모별 사육호수 비중 및 사육마리수 비중의 관계



자료: USDA/N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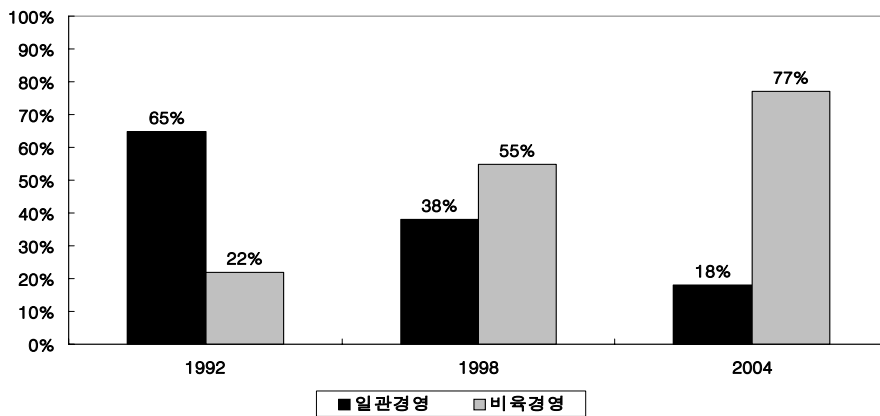
한편, 양돈 경영 형태는 예전의 일관경영에서 벗어나 분만에서 출하에 이르는 생산 과정 중 하나의 공정에 특화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 ① 일관경영 : 분만으로부터 출하까지를 일관하여 실시하는 경영
- ② 번식경영 : 분만으로부터 비육소돈(체중13.6kg-36.3kg)까지 육성하는 경영
- ③ 전기육성 : 분만으로부터 이유까지 육성하는 경영
- ④ 후기육성 : 이유로부터 비육소돈(체중13.6kg-36.3kg)까지 육성하는 경영
- ⑤ 비육경영 : 비육소돈을 구입해 비육하는 경영

이러한 경영형태의 구분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산자는 5개의 타입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래는 ①의 일관경영형태이지만 사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을 때 비육소돈을 ⑤의 비육경영체에 매각하는 등 부분적인 ②의 번식경영형태가 되는 사례 등이 있다.

경영형태별 돼지 출하마리수 비율을 보면 총 출하마리수에서 차지하는 일관경영의 비중은 1992년 65%에서 2004년 18%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육경영으로부터 출하되는 돼지의 비중은 1992년의 22%에서 2004년 77%로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의 돼지생산은 대부분 한 공정에 특화하는 분업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일관경영 및 비육경영의 출하마리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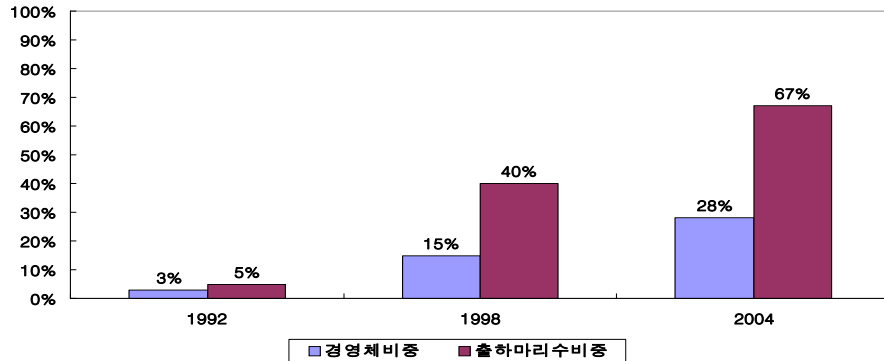
자료: USDA/NASS.

이와 같은 분업 체제가 진행된 요인으로 생산자 간 체결된 생산 계약(Production Contracts)을 들 수 있다. 생산 계약이란 생산자(hog producer)와 오너(대체로, 대규모 양돈 경영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오너가 생산자에게 비육소돈, 사료, 연료비, 수의사 비용 등을 제공하는 대신 생산자는 노동력과 기계, 시설 등을 제공하는 생산위탁에 관한 계약이다. 단, 이 계약에서 돼지의 소유권은 오너에게 있다. 생산자 수 및 돼지 출하마리수에서 생산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2년에는 각각 3%, 5%였지만 2004년에는 28%, 67%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돼지 생산에 있어 생산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 계약의 메리트는 오너와 생산자 모두 생산의 한 공정에 특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규모 확대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돈 경영체의 사육 규모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 계약을 체

미국의 돼지생산은 대부분 한 공정에 특화하는 분업 체제가 특징인데, 그 요인으로 생산자 간 체결된 생산 계약을 들 수 있다.

그림 4 생산 계약하의 경영체 및 출하마리수 비중



자료: USDA/ERS.

결한 양돈 경영체의 사육 규모 확대가 보다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USDA에 의하면 생산 계약을 체결한 양돈 경영체와 다른 경영체의 출하마리수 격차는 1992년에 1가구당 약 1,000마리였지만 1998년에는 3,700마리로 확대되었고 2004년에는 그 격차가 4,500마리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양돈 경영체의 현저한 규모 확대는 생산 계약에 근거한 분업 체제의 확립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돈 경영의 규모화에 따라 농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양돈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92년 농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양돈소득의 비중이 46%였지만 2004년에는 71%로 증가하였다. 한편, 경영체 내에서 생산하는 양돈용 곡물의 비율은 1992년 49%에서 2004년 19%로 하락하였다. 이는 생산 계약하에서 오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생산자의 경영자원을 돼지의 사육규모 확대에 투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양돈소득 및 곡물 자급률의 추이

	1992년	1998년	2004년
농업소득 중 양돈소득 비중(%)	46	56	71
경영내 곡물자급률(%)	49	35	19

자료: USDA/ERS.

돼지 사육마리수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돼지 생산은 옥수수가 풍부하게 수확되는 아이오와 주를 중심으로 Heartland지대(미국 중서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는 생산 계약의 진전 등에 의해서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돼지고기 생산이 활발하였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20년간 사육마리수가 3배 이상 증가하여 미국 내에서 2번째로 돼지 사육마리수가 많은 주가 되

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급속한 돼지 사육마리수의 증가는 1997년 주의 환경 규제가 강화된 이후 둔화되었지만, 이를 대신하여 광대한 토지를 보유하여 인구밀도가 낮고 가축 배설물을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부의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텍사스, 유타 등의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였다. 단, 농가당 사육마리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가장 많다.

표 3 상위 10개주의 돼지 사육마리수 추이 및 호당 사육마리수

주	돼지 사육마리수(천 마리)			사육가구수 ③	호당 사육마리수 ②/③
	1999년 ①	2009년			
	마리수②	②/①			
	1000마리	1000마리	%	가구수	마리수/가구
아이오와	13,600	19,600	144%	8,300	2,361
노스캐롤라이나	2,650	9,600	362%	2,800	3,429
미네소타	4,650	7,500	161%	4,400	1,705
일리노이	5,500	4,300	78%	2,900	1,483
인디애나	4,450	3,550	80%	3,400	1,044
네브래스카	4,200	3,250	77%	2,200	1,477
미주리	2,900	3,000	103%	3,000	1,000
오하이오	2,100	2,000	95%	3,700	541
캔자스	1,580	1,790	113%	1,500	1,193
오클라호마	nd	2,290	-	2,700	848
미국 전체	54,120	66,259	122%	75,450	878

주: 사육마리수는 각년 6월 1일 기준, 사육가구수는 2009년 2월 1일 기준.

자료: USDA/NASS Hog and Pigs Farms, Land in Farmers, and Livestock Operations 2008 Summary.

경영 타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일관경영, 비육경영은 비육에 대량의 옥수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중서부에 집중되어 있고 번식경영, 육성경영은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중서부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육성돼지나 비육소돈은 최종적으로 사료비가 낮은 중서부로 수송되어 비육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 보면, 경영 타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일관경영, 비육경영은 중서부에 집중되어 있고 번식경영, 육성경영은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표 4 경영 타입의 지역별 분포(2004년)

주	경영 타입				
	일관경영	번식경영	비육경영	전기육성	후기육성
중서부 Heartland	53%	13%	69%	32%	76%
오대호주변 Northern Crescent	21%	3%	9%	6%	4%
동부 Eastern Uplands	4%	9%	1%	33%	2%
남연안부 Southern Seaboard	4%	5%	10%	13%	18%
서부 Western region	18%	70%	11%	15%	0%

주: 서부지역은 「Prairie Gateway」와 「Basin and Range」.

자료: USDA/ERS.

2008년 기준 대규모 양돈기업 중 모돈 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102만 마리의인 Smithfield사이다.

다음으로 양돈산업에서 대규모 기업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돼지 사육마리수가 정체된 가운데 대규모 양돈기업 상위 10개 회사가 차지하는 번식용 돼지의 비중은 1997년 19.7%에서 2008년 41.1%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약 10년간 양돈기업에 의한 소규모 생산자의 흡수나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산 단계의 과점화가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2008년 기준 대규모 양돈기업 중 모돈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102만 마리의인 Smithfield사로서 2위인 Triumph Food사의 39만 6천 마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Smithfield사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의 식육처리 가공시설에서 출발하였지만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생산 단계의 수직적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2006년 당시 업계 3위인 Premium Standard Farms를 인수한 이후 모돈수는 100만 마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 5 모든 사육규모 상위 10개사의 모든 사육마리수 추이

단위: 천마리

업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smithfield foods	744	756	808	842	842	1,027	1,020
triumph food	-	-	-	351	400	404	396
seaboard	212	214	214	214	214	214	214
iowa select farms	100	100	130	150	150	150	160
pipestone	100	100	100	110	130	136	144
prestige farms	122	129	130	140	140	142	140
maschhoffs	36	51	53	115	116	115	130
cargill	105	118	99	94	87	107	116
maxwell food	-	-	-	76	76	85	87
AMVC management	34	36	50	65	75	95	82

자료: Cattle Buyers Weekly.

식육 Packer(식육처리업자)에 대해서도 집약화가 진행되고 있어 상위 3사가 도축 마리수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Packer는 대규모 양돈기업과 같은 Smithfield사이며, 1일 도축처리 능력은 11만 8,700마리로 2위인 Tyson food사의 7만 4,300마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한, 최근의 중요한 변화로 남미 최대의 식육처리업자인 JBS의 미국 진출을 들 수 있다. JBS는 2007년 미국 돼지고기 부문과 쇠고기 부문 3위 업체인 Swift사를 인수해 미국에 진출했다. 그 후에도 JBS는 닭고기 업계 대기업인 Pilgrim's pride사를 인수하는 등 축종을 가리지 않고 규모화를 진행하고 있다.

표 6 식육 Packer 상위 10개사의 1일 돼지도축처리 능력

단위: 마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smithfield foods	80,300	109,900	109,400	102,900	102,900	118,700	118,700
tyson food	-	71,000	72,300	72,800	72,800	74,000	74,300
JBS USA	-	-	-	-	-	47,000	48,500
cargill	-	-	-	36,000	36,000	36,000	36,000
hormel foods	26,000	26,000	26,000	35,800	35,800	36,800	36,800
triumph foods	-	-	-	8,000	16,000	17,500	19,000
seaboard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800	18,700
Indiana packers	12,000	12,000	12,500	12,500	14,000	15,000	16,000
hatfield packing	7,800	7,800	10,200	10,200	10,200	10,600	10,600
J.H. routh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자료: Cattle Buyers Weekly.

한편 최근 생산자와 식육 Packer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Smithfield사와 같이 식육 Packer가 스스로 양돈장을 소유하는 「수직적 통합」이 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하면 2002~2005년 식육 Packer가 소유하고 있는 돼지의 비중이 20~30% 정도로 추정되어 수직적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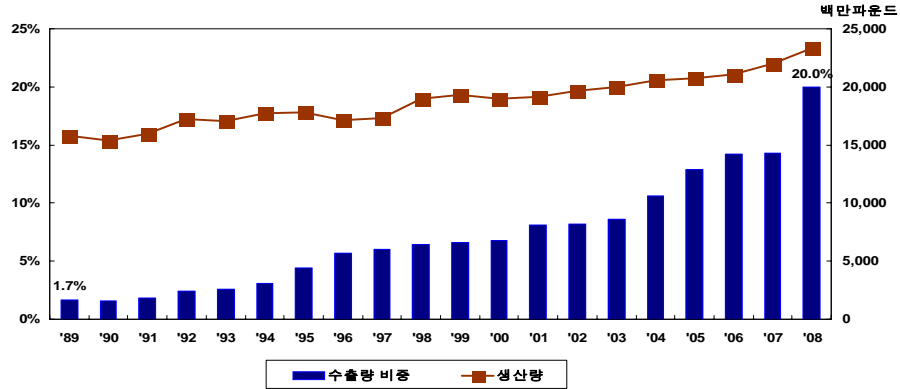
한편, 식육 Packer와 생산자의 거래는 출하마리수, 출하 체중, 출하 장소, 출하 시기, 가격의 설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는 「판매 계약」이 주체가 되고 있고, 출하된 돼지의 89%가 이러한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와 식육 Packer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여 리스크가 높은 수직적 통합보다 「판매 계약」의 방법을 이용해 통합하는 수직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수직적 조정에 의해 돼지고기의 균일성, 품질 확보, 적절한 도축시설의 가동률 확보 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농업법 논의 시 식육 Packer의 수직적 통합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Packer의 가축소유를 강하게 반대했던 것에 유의해야 한다.

식육 Packer와 생산자의 거래는 출하마리수 등을 미리 정하는 판매 계약이 주체가 되고 있고, 출하된 돼지의 89%가 이러한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수출입 상황 : 2008년 중국 수출이 큰 폭 증가

미국 양돈업계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거의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출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도 증가하여 돼지고기 생산량에 차지하는 수출량의 비중은 1989년 1.7%에서 2008년 20.0%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6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과 수출량 비중



자료: USDA/ERS.

미국의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 중 수출량의 비중은 1989년 1.7%에서 2008년 20.0%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수출량이 20억 파운드(90만 7천 톤)를 초과한 2004년 이후 주요 수출대상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성장률은 러시아, 중국·홍콩, 한국의 순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 러시아 수출량은 2006년부터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던 브라질에서 규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으로 수입처를 이동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8년 수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홍콩의 수입량 증가가 큰 요인이었다.

2007~2008년 중국·홍콩으로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수반하는 구매력의 상승과 함께 중국내에서 발생한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등의 영향에 따른 중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 북경 올림픽 특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수출대상국별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

단위: 천 파운드(지육기준)

	2004	2005	2006	2007	2008	04-08성장률	2008점유율
일본	920,851	1,045,956	1,015,423	1,072,788	1,323,719	11.2%	28.4%
멕시코	532,642	538,227	608,937	451,407	673,931	18.0%	14.4%
캐나다	234,366	302,211	324,935	367,584	422,266	17.4%	9.0%
러시아	67,069	94,099	208,744	244,311	429,908	112.9%	9.2%
한국	71,177	190,085	293,416	264,854	296,967	42.6%	6.4%
중국+홍콩	116,559	146,674	161,873	355,047	851,360	65.2%	18.2%
기타	237,871	348,863	381,769	385,191	669,098	30.3%	14.3%
합계	2,180,534	2,666,116	2,995,096	3,141,181	4,667,250	23.0%	100.0%

자료: USDA/ERS.

그리고 수출대상국 비중의 변화를 보면, 수출량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던 일

본이 30%까지 감소한 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중국·홍콩이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수출대상국 상위 6개국 이외 국가의 비중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출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표 8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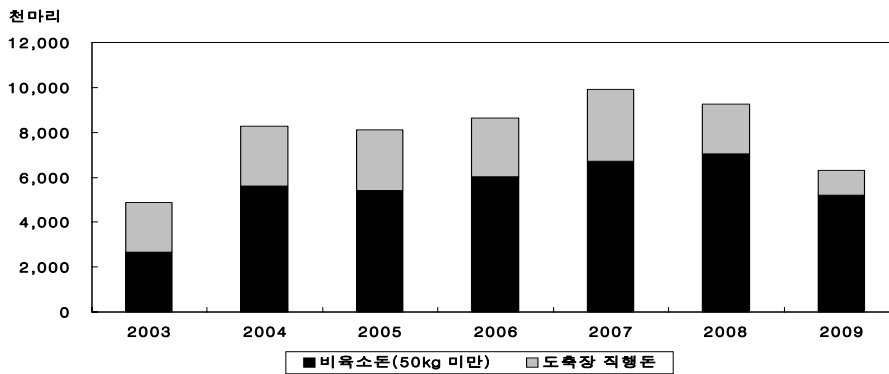
수출국	1993년	2000년	2008년
일본	49.6%	45.3%	28.4%
멕시코	22.0%	22.7%	14.4%
캐나다	8.1%	10.8%	9.0%
러시아	9.4%	2.1%	9.2%
한국	1.4%	3.3%	6.4%
중국(홍콩 포함)	1.5%	4.1%	18.2%
기타	7.9%	11.8%	14.3%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USDA/ERS.

미국은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반면 캐나다로부터 주로 생육·냉장육을, 덴마크 등에서 냉동육을 수입하고 있다. 이 두 나라가 주된 수입처였지만 NAFTA(북미 자유 무역협정) 발효 이후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생돈 수입은 대부분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데 2007년에는 1,000만 마리 이상이 수입되었다. 수입되는 생돈은 주로 비육소돈과 도축장행 비육돈으로 나누어진다. 캐나다 정부가 곡물 수출의 보조금을 중지한 1995년 이후, 비육소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으로 캐나다 양돈 농가는 스스로 비육하는 것보다 미국의 비육농가에 비육소돈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비육소돈의 미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7 캐나다산 생돈 수입 추이



자료: USDA/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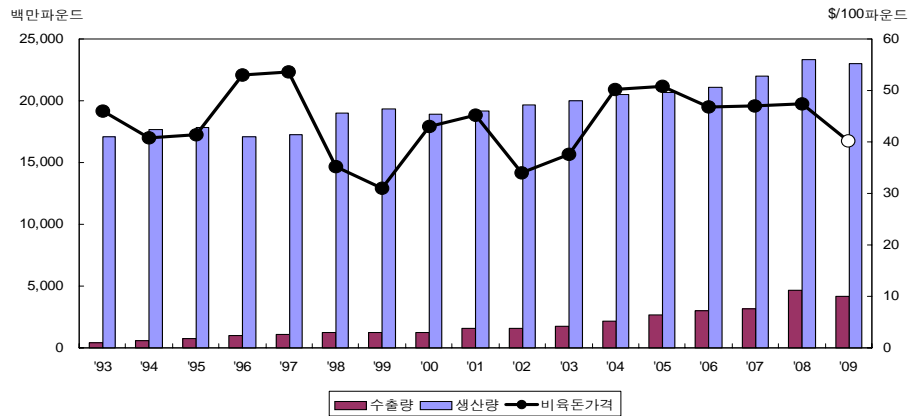
3. 돼지고기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생산, 가공, 유통단계가 판매 계약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순조롭게 발전하여 왔으나, 주변의 환경 변화에 의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생산단계에서 생산계약을 이용하여 전문화를 진전시키면서 동시에 규모화도 병행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 또한, 가공 유통단계에도 식육 Packer가 기업의 흡수·합병을 통해 규모 확대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이들 생산, 가공, 유통단계가 판매 계약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순조롭게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주변의 환경 변화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발단된 사료비 상승,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 2009년 4월 H1N1의 발생에 따른 급격한 수급 변동 등이다.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NPPC)에 따르면 이 세 요인에 의해 “돼지 1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23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요인이 실제로 미국 양돈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산비, 수출, 비육돈가격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그림 8 돼지고기 생산량, 수출량 및 비육돈가격 추이



주: 생산량, 수출량은 지육 기준이며 2009년 비육돈가격은 ERS 추정치.
자료: USDA/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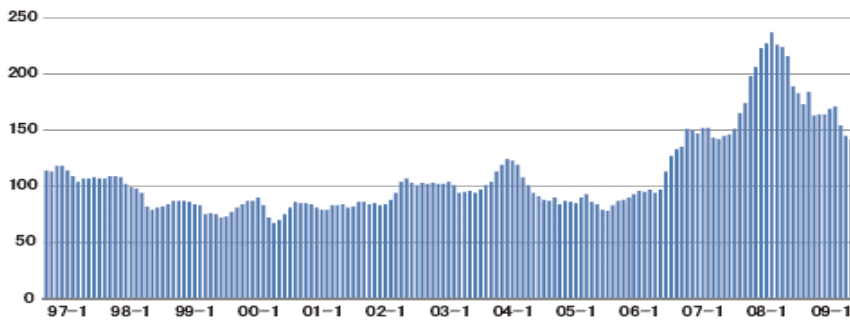
생산비: 바이오 에탄올 정책에 의한 사료 곡물 가격 상승

미국 정부의 바이오 에탄올 진흥책으로 2006년 가을 이후 사료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돼지 생산비의 약 60%를 사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사료 곡물 가격의 상승은 양돈 경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료 곡물 가격(지불 가격,

1990~92=100으로 하는 지수)의 추이를 보면 2006년 가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08년 여름에 최고치를 보인 후 다시 하락하였지만 상승하기 이전인 2006년 가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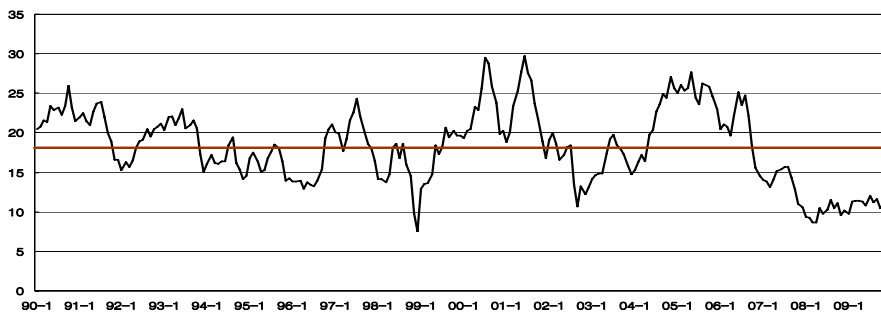
다음으로 양돈 경영의 수익성을 재는 지표로서 USDA가 매월 공표하고 있는 비육돈가격과 사료비 비율의 추이를 보자. 이 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비육경영의 채산성 하한선은 18로 알려져 있는데, 2006년 후반 이 수준보다 하락한 이후 2007년 후반까지 계속 하락하였고 현재까지도 10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육돈가격이 침체를 보였을 때 10 전후의 수준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으나 곧바로 회복한 반면, 최근처럼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없어 양돈 농가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격이 하락하기 이전의 2004~2006년 가을까지는 채산성라인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양돈 경영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추정되지만, 2007~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그 수익은 생산을 위한 투자에 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사료곡물가격 추이(1990~92=100)



자료: USDA/ERS.

그림 10 돼지-옥수수 가격비율(비육돈가격÷옥수수 가격) 추이



주: 적색선은 채산라인(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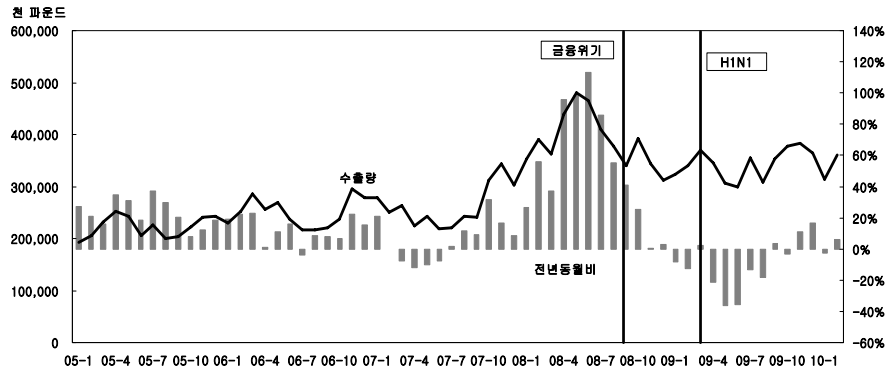
자료: USDA/ERS.

수출 : 세계적인 경기침체, H1N1의 영향

2009년 4월 미국에서 H1N1 발병으로 인해 수출용 돼지고기가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으로 비육돈가격이 하락하였다.

미국의 2008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중국의 북경 올림픽 특수 등으로 전년대비 48.6%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10월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국제적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하락하여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4월 미국에서 H1N1이 발병되면서 최근 몇 년간 수출증가를 주도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수출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출 감소로 인해 수출용 돼지고기가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미국의 돼지고기 수급 불균형으로 비육돈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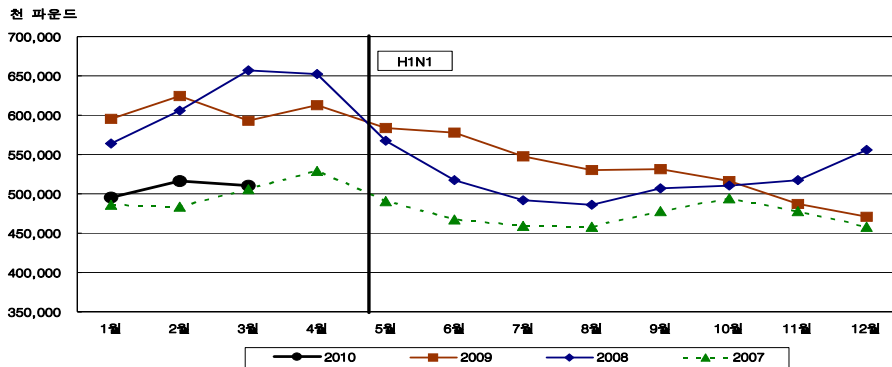


자료: USDA/ERS, 지육 기준.

한편, 냉동 돼지고기의 재고 추이로 보아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재고는 대폭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재고가 예년과 비교하여 완만히 감소함에 따라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이 감소하였더라도 2007년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수출량 감소는 수급 균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국가별 수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중국(홍콩 포함)이 전년보다 56.3% 감소하였고,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32.6%, 13.6% 감소하였다. 반면, H1N1이 처음으로 확인된 멕시코는 5월에만 수출이 전년을 밀돌았을 뿐 전년 대비 33.4% 증가하여 주요 수출지로서는 유일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 냉동 돼지고기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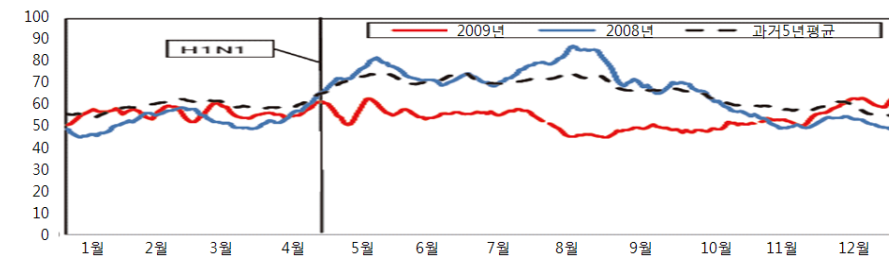
자료: USDA/NASS.

비육돈가격 : H1N1의 영향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H1N1이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국에서도 인체감염이 확인되었다. H1N1은 돼지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어 돼지를 통해 감염된다는 소문이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소문이 비육돈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비육돈가격은 여름의 바비큐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돼지고기 수요가 상승하여 5월부터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1998년과 2002년에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예년대로라면 2009년 5월 무렵부터 여름으로 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어야 했다. 그러나 4월 하순 H1N1이 발생함에 따라 ① 중국 등의 수출 금지로 미국 내 돼지고기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② 돼지고기에 대한 일시적인 이미지 악화 등으로 비육돈 가격은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생산자는 연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에 H1N1 소동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비육돈 출하가격(거래교섭가격, 지육 기준) 추이

단위: \$/100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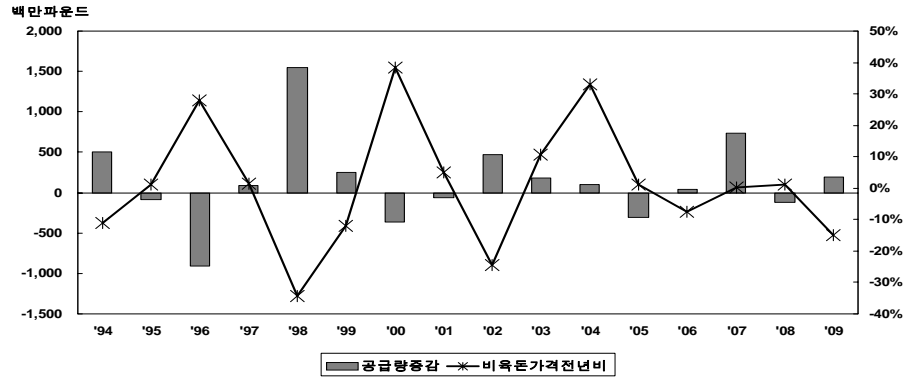


자료: USDA/AMS.

세계적인 금융 위기나 H1N1 등 외적 요인 이외에도 본래 과거 수준과 비교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과잉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돼지고기 산업을 둘러싼 외적 요인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994년 이후의 돼지고기 공급량(「생산량 증가 - 수출량 증가」를 공급량 증가로 가정)과 비육돈가격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해에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2007년 가을에 정식 승인된 썬코백신의 보급으로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개선된 결과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2008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6.4% 증가한 230억 파운드(1,046만 톤, 자육기준)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수출 수요 개척을 통한 자국내 공급량 감소로 돼지고기 가격을 가깝스로 유지해 왔다고 추측된다. 미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나 H1N1 등 외적 요인 이외에도 본래 과거 수준과 비교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과잉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이번의 위기상황을 더욱 확대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 돼지고기 공급량과 비육돈가격의 관계



주: 공급량은 자육기준.
자료: USDA/ERS.

4. 미국 정부의 지원책

경영 악화로 고심하는 양돈 경영체에 대해서 USDA는 돼지고기 수매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 악화로 고심하는 양돈 경영체에 대해서 USDA는 돼지고기 수매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매에 의한 공급량 감축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양돈 경영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2008년 이후 NPPC 등의 생산자 단체나 농업 관련 의원 등은 USDA에 돼지고기 수매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USDA는 국내용 영양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일정량의 돼지고기를 매입하고 있지만, 최근 양돈 경영체의 수익성 악화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통한 돼지고기

의 추가 구매를 실시하였다. 2008~2009년 돼지고기 총 구매액은 1억 5,500만 달러 (144억 엔: 1달러=93엔)에 이르고 있다.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은 돼지고기 등의 식품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구매로 인한 해당 품목의 수급 개선은 부차적인 효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USDA가 구매량을 늘리고 있는 배경은 미국내 경기침체에 수반해 저소득계층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구매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사업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SNAP(구 푸드 스탬프 사업: 저소득자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 학교 급식 사업(저소득층 학생·아동에게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급식을 시행하는 사업) 등 15개 사항이 있는데, 돼지고기는 주로 SNAP 이외의 학교급식 사업 등이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국민 7명 중 1명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양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농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영양지원사업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표 9 최근 미국 정부의 돼지고기 구매

구매 공표일	예산
2008년 5월 11일	5,000만 달러
2009년 3월 31일	2,500만 달러
2009년 9월 3일	3,000만 달러
2009년 11월 11일	5,000만 달러

자료: USDA.

돼지고기 구매의 효과

다음으로 수급 개선 효과의 관점에서 돼지고기 구매에 대해 살펴보자. USDA의 구매 결정 공표일과 돼지 지육 가격의 가격변동을 보면, 공표일 직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 구매의 즉각적인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육 가격이 여름에 바닥을 치고 연말까지 상승한 것을 볼 때, ① 2009년 3회에 걸쳐 정부의 돼지고기 구매의지를 시장에 공표한 것과 ② 2009년 5월 이후 냉동 돼지고기 1,800만 파운드(약 8,300톤, 12월 3일 시점), 햄 제품 1,900만 파운드(약 8,900톤, 12월 3일 시점)의 돼지고기를 구매를 통해 시장에서 격리시킨 것은 생산자의 생산 삭감 노력과 더불어 수급 개선에 일정한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HSUS(The Huma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미국 휴먼 소사이어티)가 주장하는 ① 양돈 업계가 지금까지의 사육 관리(치료 목적이 아닌 항생 물질의 사용 등)를 재검토하도록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CFFE(The Campaign for Family

수급 개선 효과의 관점에서 돼지고기 구매의 즉각적인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나, 생산자의 생산 삭감 노력과 더불어 수급 개선에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Farms and the Environment; 가족농업·환경 캠페인)가 주장하는 ② 수급불균형의 원인인 생산 증가의 억제 대책(규모확대 자금지원 정지 등)을 강구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매입하는 것은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등 돼지고기 수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 돼지고기 산업의 양우 전망

2009년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미국 돼지고기 산업의 2010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행히도 돼지 비육가격이 2009년 여름을 저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USDA는 2010년 돼지고기 수급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본항에서는 USD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양돈 경영체의 수익성을 추정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행방을 크게 좌우할 요인들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돼지고기 수급 전망

USDA는 2010년 수급상황이 개선되어 비육돈가격은 전년 대비 5.4%~12.7%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USDA는 2010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급상황을 표 10과 같이 예측하였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비육돈가격의 하락에 동반하는 감산을 반영해 전년대비 2.8% 감소하고, 돼지고기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결과, 수급상황이 개선되어 비육돈가격은 전년대비 5.4%~12.7%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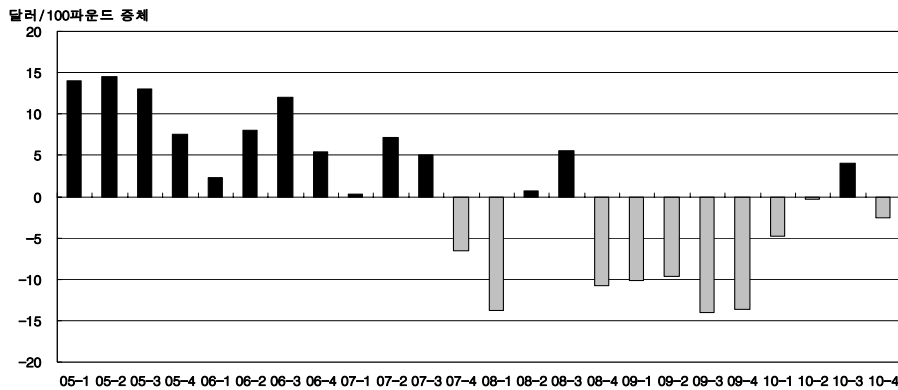
표 10 2010년 돼지고기 수급 전망

	2009년	2010년
돼지고기 생산량	23,052백만 파운드	22,410백만 파운드(▽2.8%)
돼지고기 수출량	4,176백만 파운드	4,600백만 파운드(10.2%)
비육돈 가격	40.81\$/100 파운드	43~46\$/100 파운드(5.4~12.7%)

주: 2009년 12월 시점의 전망.
자료: USDA/ERS.

USDA의 전망이 실현되었을 경우, 2010년 양돈 경영체의 수익성(조수입-생산비)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USDA가 공표한 추정 생산비(2004년 생산비를 기초로 USDA가 추계)와 현 시점(2009년 12월 시점)에서 USDA의 비육돈 및 옥수수 전망가격을 근거로 2010년 미국 양돈 경영체의 수익성을 추정하였다. 2010년에도 수익성은 마이너스를 보이겠지만 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어, 비육돈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3분기에는 플러스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비육돈가격이 약세를 띠는 4분기 수익성은 다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5 미국 양돈경영체 수익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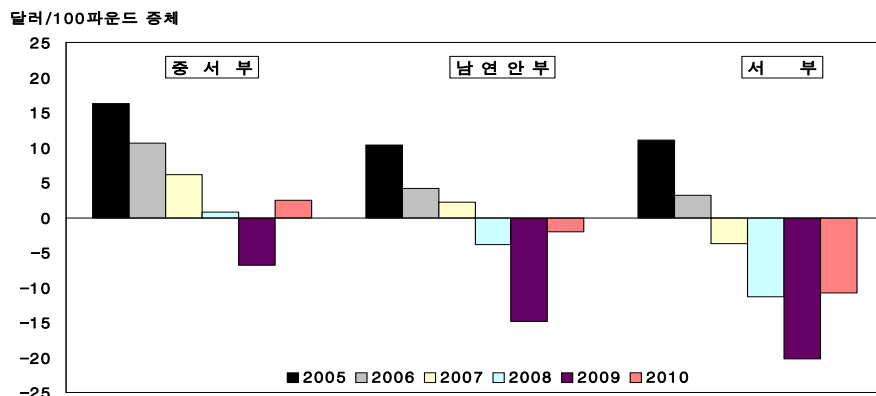


주: 2009년 12월 시점에서 USDA/ERS 추정생산비, 2009년, 2010년 비육돈 예측가격, USDA/WAOB의 옥수수 가격(생산자평균도매가격)의 동향을 고려하여 ALIC에서 추정함.

한편, 지역별 양돈 경영체의 2010년 수익성은 사료비가 낮은 중서부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지만 사료비가 비싼 남 연안부 및 서부의 수익성은 2009년보다 개선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로 볼 때 2010년 수익성은 2009년보다 개선되지만 사료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의 수익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USDA의 예측치 이상의 생산량 삭감 및 수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USDA 예측치 이상의 생산량 삭감 및 수출 확대가 필요하며,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중요하다.

그림 16 미국 양돈경영체의 지역별 수익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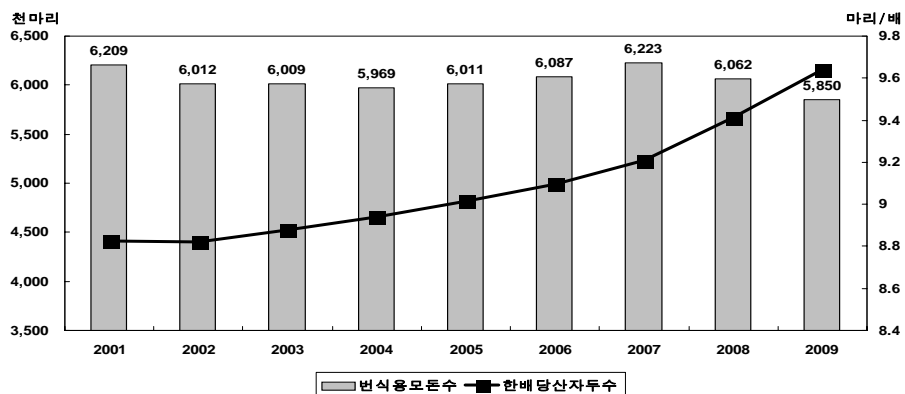
주: 2009년 12월 시점에서 USDA/ERS 추정생산비, 2009년, 2010년 비육돈 예측가격, USDA/WAOB의 옥수수 가격(생산자평균도매가격)의 동향을 고려하여 ALIC에서 추정함.

사육규모 감축

생산자도 돼지고기
수급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 생산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생산자도 돼지고기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미국의 번식용 모돈수는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2008년부터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전년대비 2.7%, 3.5%의 번식용 돼지를 감축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썬코백신 등의 효과로 한 배당 새끼 돼지수가 연 2.3% 증가하고 있어, 생산량 감축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7 번식용 모돈수 및 한 배당 자돈수 추이



자료: USDA/NASS.

또한, 각 주의 번식용 돼지 삭감 추이를 보면 주마다 삭감 페이스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의 사육 규모가 큰 아이오와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미네소타 주 등은 수익성이 한 번 악화되면 적자액도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신속한 삭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남 연안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도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최대의 대규모 양돈기업인 스미스 필드가 18개월에 10만 마리의 번식용 모돈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규모가 작은 오클라호마 주는 번식용 돼지를 증가시키고 있다. 향후의 수급 개선에는 중·소규모 생산자를 포함하여 생산자 모두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여 향후의 수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번식돼지의 감축두수에 대해 해당 지역의 농업 컨설턴트는 「30~50만 규모(전체의 5~8% 감소)의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0년의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량 감소로 일반적으로 가격이 약세를 띠는 4분기에도 선물가격, 비육돈가격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산자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여 번식용 돼지의 감축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 향후의 생산자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표 11 주별 번식용 돼지의 전년대비의 추이

주 (번식용 돼지 사육마리수)	2005	2006	2007	2008	2009
아이오와 (1,020천마리)	0.0%	0.9%	0.0%	-0.9%	-4.7%
노스캐롤라이나 (930천마리)	-1.0%	0.0%	1.0%	-3.9%	-5.1%
미네소타 (560천마리)	-1.7%	0.0%	1.7%	-3.3%	-3.4%
일리노이 (480천마리)	2.4%	2.3%	9.1%	2.1%	-2.0%
오클라호마 (410천마리)	0.0%	-2.8%	14.3%	0.0%	2.5%
미국 전체 (5,850천마리)	0.7%	1.3%	2.4%	-2.7%	-3.5%

자료: USDA/NASS.

한편, 최근 캐나다로부터 생체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감산에 돌입한 생산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전의 캐나다산 생체 수입은 연간 1,000만 마리(미국 연간 도축두수의 약 8%)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① 최근 캐나다 달러 가치의 상승, ② 캐나다의 사육두수 감소, ③ 2008년 9월부터 실시된 미국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른 미국 Packer의 구매의욕 저하 등으로 캐나다산 생돈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수입량은 636만 마리로 전년보다 31.9%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수출 확대 가능성

미국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사육마리수 감축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수출확대일 것이다. 2010년 돼지고기 수출에 대해 USDA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달러 하락을 배경으로 최고 수준이었던 2008년에 가까운 수출량을 전망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각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H1N1과 관련된 미국의 일부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농무장관이 2009년 10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H1N1에 의한 수출 금지의 해제를 이루었다. 이 뉴스는 돼지고기 산업에 큰 희망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중국의 2008년 수입증가는 북경 올림픽 특수 수요 및 중국내의 가축 전염성 질병에 의한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바가 컸다. USDA에 의하면 2010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전년대비 4% 증가하지만 수입은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으로의 2010년 돼지고기 수출은 2008년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또 다른 수출지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H1N1 관련 수출 금지는 해제되었지만 항생 물질의 잔류 기준 등 검역 조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수출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 할당량을 2009년의 10만 톤에서 2010년 5만 7,500톤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통고하여, 러시아로의 2010년 돼지고기 수출 전망도 밝은 상황이 아니다. 이에 비해 2009년 대 일본

USDA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달러 하락을 배경으로 최고 수준이었던 2008년에 가까운 수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보다 3.8% 감소하였지만, 수출량으로는 2위인 멕시코를 크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2010년에도 엔고와 달러가치 하락을 배경으로 기대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금년에 들어와 급속히 수입을 늘리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사료가격 : 가솔린의 에탄올 혼합률이 하나의 포인트

주요 사료 곡물인 옥수수의 가격 동향은 양돈 경영체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준다.

주요 사료 곡물인 옥수수의 가격 동향은 양돈 경영체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준다. 2009/10 수확년도의 옥수수 생산량은 가을의 기후 불순에 의해 수확이 늦었지만, 단수가 크게 증가하여 사상 2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9년12월10일 현재). 때문에 옥수수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양돈 경영체에게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청(EPA)은 혼합물 상승에 따른 차의 엔진 등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금년 6월 중순까지 에탄올의 가솔린 혼합률 상한선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10%인 에탄올의 가솔린 혼합률 상한선이 에너지 단체가 요구한 대로 15%로 인상되면, 옥수수의 시카고 시세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콘 벨트의 폭설로 수확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는 등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옥수수의 가격 동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NPPC는 미국 정부의 바이오 에탄올 정책에 관해 옥수수에서 추출된 에탄올의 생산 확대가 축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하도록 미국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양우 과제는 식육 가공 시설의 가동률 유지

현재 Packer의 경영 상황은 예년과 비교해 낮은 비육돈가격으로 생산자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의 번식돼지 도태에 따라 향후 출하마리수가 감소하면 비육돈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식육 가공 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져 Packer의 경영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식육 가공 시설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일정한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Packer는 번식돼지 도태의 영향으로 도축마리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미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다수의 Packer는 시설 가동률 저하에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미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값싼 사료와 대규모화에 의한 효율적인 저비용 생산으로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국내 소비량을 초과한 돼지고기는 수출로 전환하여 수급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이번 미국의 돼지고기 산업에 큰 타격을 준 사료 곡물 가

격 상승, H1N1 및 경기침체에 의한 수출 부진은 확실히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에 사태의 심각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도 2010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제는 사료 곡물 가격이 예전 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육돈 생산이 중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양돈산업은 사료 곡물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하고 있어 사료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양돈 경영체의 대폭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돼지고기 산업 유지의 전제조건인 사료곡물의 저가 공급이 불가능한 지금, 미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새로운 구조개혁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은 아닐까 판단된다.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번식용 돼지의 감축 등 감산형 생산조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악화될 수익성으로 예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집약화, 구조재편 등의 효율화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등 미국 양돈업계의 동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새로운 구조개혁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은 아닐까 판단된다.

참고자료

<http://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0/feb/gravure01.htm>.

米国における豚肉産業の現状と課題